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IMBA는 2003년 교육부로부터 최초로 설립 허가를 받은 온라인 MBA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경영학 석사 정규학위과정이 수여되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IMBA는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정기 출석을 통한 학위 취득이 힘든 직장인 또는 사업가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전임교수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 과정으로 유사기관과는 차별화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IMBA는 한국과 해외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한달 2-3번 토요일 오프라인 수업

과 주 1~2회 담당 교수와의 실시간 화상 Q&A를 통해 온라인을 보완하는 보강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온라인과 화상 Q&A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공통적으로 튜터제도를 도입해 학업진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의 경우 중간고사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는 한국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기말고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입국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경영학 핵심 및 심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각 과목에 맞게 설계된 IMBA 콘텐츠는 동영상 강의, 방대한 강의 자료, 토론방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 금융기관 등 여러 기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원우와의 교류를 통해 또 다른 경영학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얻게 된다. 또한 2007학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의 장학금을 지

급하여 평균 30%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 또한 IMBA의 특징으로 골프회, 성폭회, 야구회 등의 동아리와 금융관계자들의 모임인 회계금융연구회, 제약업계 사람들의 모임인 제약바이오 연구회, 그리고 지역연구회 등 다채로운 연구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중국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등 세계 10개 지역에서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년 2학기 모집을 위해 10월 상해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해에 거주하는 주재원,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지원자에게는 오프라인 수업 대신 학기당 1회 교수님의 현지 특강 및 중간고사도 현지 진행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상해에서는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디존호텔 10층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위해 설명회 사전신청을 IMBA 사이트(www.imba.ac.kr)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 희망자에게 한해서 당일 면접이 가능하다. 입시요강은 홈페이지(www.imba.ac.kr)나 이메일 imba@skku.edu, 전화(82-760-0851~2)로 문의하면 된다. 위챗(sioibanlee)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일의 비행 아시아나 350
하늘에서도 일상의 즐거움, 지상의 편안함 그대로

4월 26일부터 상하이(푸둥)-서울(인천) OZ362 운항

- 기내 Wi-Fi & 항공 로밍 서비스
- 기내 소음 감소
- 더 넓은 Economy Smartium
- Full LED 무드라이트
- 편안한 기내환경 (aircomfort)
- 여유로운 이코노미 좌석폭

ASIANA AIRLINES 韓亞航空

*기종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역 하나 빠뜨리며 안됩니다



“Grammar와 Structure의 이해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Writing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상 G3-4	대상 G5-6	대상 G5-6
월/수/화/목	화/목	화/목/금
토플+문법	토플 Intensive	
G(8)-9-10	G10-11	대상 G7-8(9)
월/수/금	화/수/목	월/수/금
내신문법 집중반	3년특례 문법집중반	BASIC CLASS
G 6-11	G9-10	G1-2
월/금	화/목	문의

“학부모님 보내주시는 문자 중 일부”

큰 아이는 한국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YCIS국제학교 Y7으로 입학했고 수학은 너무도 좋아했지만,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에 자신 없어 했기에 전과목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2년 6개월간 여러 학원을 다녀봤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갈수록 성실도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탑플러스에 다녀온 첫 날부터 큰 아이가 단어를 외우고 숙제를 미리하는 모습에 너무 놀랐지만, 놀라운 잠시 뒤로하고 일주일 하다가 말겠지~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잠드는 순간까지 단어를 듣고 있고 심지어 가족여행 중에도 단어를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제 눈을 의심 했었습니다. 현재 1년 4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학원 숙제 뿐만 아니라 학교 숙제까지도 집중해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해 맨처음 와서 EAL1(최하위 레벨) 영어 레벨을 판별받고 2년 6개월간 1단계 상승한 EAL2에서 변함이 없던 큰아이 Writing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칭찬과 함께 그 어렵다던 English Literature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 아이가 학원다니지 한달 만에 작은 아이가 너무도 달라진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저희 말은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웃는 얼굴로 칭찬만 해주세요.
즐겁게 공부시키겠습니다!